

## 성인 초기여성의 양방향 데이트폭력 경험\*

박 경 은<sup>†</sup>

세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양방향 데이트폭력 경험의 본질을 탐구해 보기 위한 목적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성인 초기 여성 13명과 인터뷰하였고, 그 자료를 질적 연구분석 방법 가운데 현상학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25개의 소주제와 9개의 대주제를 도출해 내었다. 결과로 도출된 대주제에는 ‘상대 연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됨’,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압박감과 불쾌함’,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자기개념이 손상됨’,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 ‘폭력 피해를 묵인하며 내적으로 갈등함’, ‘주도권 쟁탈을 위해 선제공격을 시도함’, ‘집착하고 통제하며 불안을 견뎌냄’, ‘공격적인 예민함은 정당화하며 허용함’, ‘대응하기 위한 가해 동기의 정당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한 개인의 경험 속에서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동기 및 심리적 영향,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적 요소들을 드러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논의하였고, 향후 임상적 개입 및 프로그램 구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성인 초기, 여성, 양방향 데이트폭력, 현상학, 질적 연구

\* 본 논문은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박경은, 세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학술관 310호

Tel: 043-649-7317, E-mail: p4a7r4k3@semyung.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치안 전망’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신고건수는 52,771건이었던데 반해, 2023년 58,571건으로 약 11.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되어 검거된 인원은 1만 2천 841명으로 2020년 8천 982명에 비해 약 42.9% 증가한 수를 나타냈다(연합뉴스, 2024. 05. 14). 최근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반복되면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례로 2024년 4월 26일 서울 금천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이별 통보에 화가 난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24년 5월 8일에는 강남 한 건물의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배경 안에는 현행 제도 안에서 규제할 수 없는 법률의 제도적 미비의 한계가 자리해 있다(장미혜 외, 2021).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계류하고 있다. 이는 법정 정당성이 모호하고 형벌의 과잉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서 기인한다(김혜미, 2024). 한편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하 스톱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집요한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단순한 애정 행각으로 보지 않겠다는(송민진, 박현정, 2021) 의미에서 사회적 인식

을 전환하는데 일조한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가정폭력처벌법과 같이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에서 이뤄지는 데이트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이를 묵인하거나 신고하고서도 철회하는 경우가 많아 스톱킹 처벌법 등의 규제를 통해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는 2023년 1만 3,939명이었으나 구속률은 1.87%에 그치고 있어(MBN뉴스, 2024. 05. 26.), 강력 범죄가 이뤄지기 전 사법 제도를 통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현실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톱킹 처벌법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 처벌법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다(원혜옥, 2022). 따라서 폭력이 있지만 신고 후 철회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처벌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과 다른 데이트폭력의 양상이 어떠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이뤄짐에도 결별을 선언하지 못하는 원인을 깊이 탐색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으로 분류해 왔다(박하나, 장수미, 2012; Straus, 2004; Straus, 2017). 물리적, 신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때리기, 밀치기, 던지기 등의 행위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비난을 하고 상대방의 자아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정서적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성적 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임정하, 최정원, 2022).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수위가 낮은 폭력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특징이 있고, 피해자에게 막막함, 두려움, 슬픔, 수치심, 죄책감 등을 불러일으키며(박경은, 유영권, 2017),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Sabina & Straus, 2008). 또한, 심리적 충격이나 고통으로부터 회복이 어려운 경우 알코올, 흡연 등의 물질 사용 과다 및 중독이 이뤄질 수 있으며, 낮은 자존감의 문제 및 자해·자살 등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Beck et al., 2014; Van Ouytsel et al., 2017).

비교적 최근에는 과거 정서적 폭력으로 분류했던 통제적 데이트폭력 유형을 따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Johnson et al., 2019). 연인의 행동이나 일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통제적 폭력은 그 심각성과 폐해를 더해가며 통제적 유형을 데이트폭력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기도 한다(홍영오 등, 2015). 행동 통제(controlling behavior)는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랑싸움의 한 형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수위 높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간과할 수 없다(김가은, 2022; 김동현 등, 2021; Aizpurua et al., 2021). UN(2014)은 행동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문제 인식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행동통제에는 연인이 주변에 친한 관계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옷차림을 제한하고 일과를 감시하는 등의 일상을 통제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특히, 연인이 맺고 있는 여타의 관계를 수시로 감시하고 이를 제한하며 통제하는 행위(배미란, 2022)는 친밀한 관계를 축소하여 객관적 판단의 자원들을 제한하므로 문제에 대한 사리 분별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상대의 심리를

교묘히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 행동을 조성하고 자신의 판단력에 의구심을 갖도록 만드는 가스라이팅(박정희, 2021)의 방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제적 폭력은 현실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들 뿐 아니라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Matheson et al., 2015).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제적 폭력 피해로 인한 영향으로 우울, 불안, 수면장애 및 음주 및 흡연 의존 등의 정서적 영향이 47.2%,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중단 및 감소가 32.6%, 타인에 대한 신뢰 감소가 33.7%, 또 다른 폭력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증가가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통제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이 유형의 폭력은 연구마다 남녀 통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Aizpurua 등(2021)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통제 폭력을 더 행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던 반면, 국내 20-30대 성인 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한 박지선(2024)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이 주로 가해자로 주목되어 왔던 배경 안에는 남성의 경제적, 신체적 힘의 차이가 남녀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낸 영향(Lichte & McCliskey, 2004)이 강조됐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여성 또한 남성만큼 통제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연구 결과(Giordno, Copp, Longmore, & Manning, 2016)가 제시되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통제적 폭력을 더 행사한다는 연구 결과(Ministry of Justice, 2015) 또한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데이트폭력을 다룬 연구들(Rubio-Garay et al., 2017)은

일방향 폭력이 아닌 양방향 폭력이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경은(2023)의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20대 커플의 남녀 인터뷰 결과에서도 모든 커플은 양방향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연구로는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구가 극히 드문데, 이는 대상자를 찾기 매우 어려운 영향이 있다. 이로 인해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가해 및 피해로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고유한 경험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가&피해 경험을 모두 탐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양방향 폭력으로 명시하여 기술할 것이다.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과 달리 주목을 받지 못했던 남성의 폭력 피해 경험은 이를 겉으로 드러내어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남성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작용한 영향이 있다(Dutton & White, 2013; Machado et al., 2016). 남성의 폭력 피해 경험을 다룬 박경은(2017)의 연구에서 통제적 및 심리적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남성들은 무력감, 자기비하, 신체화 증상 등의 상당한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드러내지 못했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문제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여성은 특히 통제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장정운, 강지연, 2017), 이러한 여성의 통제적 폭력은 남성에게 수위 높은 폭력을 행사하도록 자극하거나 통제적 및 심리적 폭력의 형태들이 기폭제가 되어 서로 간의 다양한 폭력이 나타나도록 이끌 수도 있다(박경은, 2023). 다른 관점에서 여성의 폭력은 남성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략으로 행사

된다는 견해들(Dobash & Dobash, 2004) 또한 있으므로 여성의 데이트폭력은 맥락적 이해를 포함한 동기를 이해할 뿐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관계의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거나 결별할 의사를 갖지 못하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더욱 큰 폐단을 낳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여성 가족 재단이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강희영 등, 2017)에 따르면 전체 약 88.5%가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고, 피해자 중 약 53%는 상대방과 결혼했다고 응답하였다. 데이트폭력이 있지만, 커플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 가운데 관계중독 성향은 이별로 인한 상실의 아픔을 견디기 힘들거나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폭력을 견디며 관계를 유지하여 데이트폭력 피해를 높인다는 관점이 있다(박미소, 이지연, 2021; 조영주, 심은정, 2023). 한편, 유기불안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버려짐에 대한 불안은 분노 폭발 등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충동적 행동을 야기하여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Bouchard et al., 2009). 이러한 특성은 초기 주요한 애착 관계 대상과의 질적인 상호작용의 경험 및 안정된 정서 체험의 부재로 인하여 상대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등 경계선 성격의 성향으로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승애, 서경현, 2019).

관계를 유지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관계 만족과 헌신(commitment), 대안의 질 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초창기 연구로 Rusbult(1983)는 자신의 투자모델(Investment Model, Rusbult, 1980a)에서 소개한

관계에서의 ‘보상(Reward)-손실(Cost)’ 공식을 통하여 폭력이 있지만, 현재 관계가 주는 만족이 크면 관계를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관계 만족과 상관성이 높지 않은 헌신은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적 측면으로 연애 초기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폭력적인 관계를 중단할 의사가 없는 커플은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Rhatigan, Shorey, Nathanson와 Alison(2011)은 폭력적인 관계 지속의 요인으로 만족 수준, 대안의 질, 투자의 정도, 헌신 수준을 통해 적응, 인지적 상호의존, 대안의 감소, 용서, 긍정적 환상, 희생의 의지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데이트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결별 의도 척도를 개발한 표승연(2011)의 연구에서도 결별 의도로 ‘관계만족’, ‘관계개입’, ‘대안이성’을 주요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폭력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연인이 양방향 폭력 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 깊이 있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폭력의 이슈가 연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법률과 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본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촉발된 다양한 갈등의 이슈를 폭력이 행사되기까지 여러 맥락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선 연구들은 가해와 피해를 나누어 한 개인이 각기 구별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로는 데이트폭력의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은 양방향 폭력으로 이뤄진다는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양방향 폭력이 행사될 때 한 개인은 피해 및 가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 및 인지적 특성 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양방향 폭력이 이뤄지게 된 맥락과 동기, 심리·정서적 반응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향후 데이트폭력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임상현장에서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개인을 탐구함으로써 생생한 관계 안에서의 경험, 폭력으로 인한 영향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초기 여성의 양방향 데이트폭력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그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 방 법

###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는 적게는 1명에서 평균 10명 전후로 소수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깊이 있는 탐구를 수행한다(Creswell & Poth, 2017; Guest et al., 2013).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3명으로 대부분 20대에 해당한다. 자세한 연령별 분포로는 20대에서부터 25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2세에 해당한다. 직업은 무직이 3명, 의료직 1명, 사무직 1명, 학생이 8명이었다. 학생은 대

부분 학사 과정에 해당했고, 1명은 석사 과정 중에 있었다. 교제 기간은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43개월로 평균 19개월(1년 7개월)을 나타냈다. 폭력 형태로는 양방향 폭력의 범주를 나타낸 것이고,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 것에는 정신적 범주가 있고, 한 사례를 제외한 대다수 사례에 나타난 범주로 통제적 범주가 있다. 이외에도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많았고, 성적 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6개이다. 이외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성으로 부모님의 잦은 불화와 갈등, 폭력 등을 경험한 경우가 있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경우는 4명, 보육원 출신은 1명이었다. 남자 친구와 교제 이후 인터뷰 당시 동거를 하는 참여자는 4명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친 후, 절

차에 따라 모집되었다. 참여자 모집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연구자 지인의 블로그 및 구인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였고,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앱 에타(에브리타임)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연구자가 이전 정책연구를 수행하던 당시 알게 된 형사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문제가 있는 성인 초기 여성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상세히 소개받았고, 소개해 준 형사와는 사법적, 개인적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인터뷰 이후 참여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지인을 소개해 주었고, 이를 통해 눈덩이식 방식의 참여자 모집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도 연구 주제와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더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사례	연령	직업	교제 기간	폭력 형태	비고
1	20	무직	12개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부모 이혼, 동거 중
2	21	학생	26개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성적	-
3	20	학생	6개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보육원 출신
4	20	무직	18개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성적	부모 이혼
5	25	의료직	43개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
6	20	무직	15개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성적	부모 이혼, 동거 중
7	25	학생	36개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8	21	학생	8개월	정신적, 통제적	동거 중
9	22	사무직	3개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
10	23	학생	17개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성적	부모 이혼, 동거 중
11	21	학생	17개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성적	-
12	23	학생	12개월	정신적, 통제적, 성적	-
13	25	학생	30개월	정신적, 신체적, 통제적, 성적	-

불어, 연구의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터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연구 참여에서 제외하였다. 더불어, 연구 참여 도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표출될 시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한 후 참여하도록 하였다. 표 1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연구 주제에 부합한 주요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므로 참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이후 모든 자료는 두 주 이내 전사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의 스터디카페 회의실을 활용하였는데, 인터뷰 공간은 조용하고 아늑하며 온도와 습도 등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1차 인터뷰는 60분에 걸쳐 진행하였고, 이후 미진한 부분은 2차 및 3차에 걸쳐 비대면 방식을 통해 약 30분 내외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후 설명문을 전달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인터뷰 참여와 철회에 대한 권리가 있고,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자료 수집이 이뤄질 것임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하였고, 질적 연구의 특성상 참여자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반 구조화된 형태로 참여자들의 진술이 자유롭게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은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검토되었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주제를 탐구해 본 연구자에게 검토되었다. 질문에는 “교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제 시 힘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갈등이나 폭력이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의 기억, 느낌, 감정, 생각 등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갈등 및 폭력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느끼신 것이 있나요?”, “친밀감, 만족감, 기대 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등이 있었다. 인터뷰는 위의 질문을 기초로 참여자들의 진술을 따라가며 갈등 및 폭력 상황 이야기 및 그 당시 때의 심리적 반응 및 대응 방식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하며 녹음한 자료는 모두 2주 이내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양방향 데이트폭력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여 위하여 질적 연구분석 방법 가운데 현상학을 활용하였다. 현상학(Husserl, 1948)은 경험의 본질을 탐구해 보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한 개인이 체험한 독특한 사건이나 상황을 그 경험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하여 한 개인이 경험한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현상학은 본 연구의 주제인 성인 초기 여성의 양방향 데이트폭력이라는 현상을

실제 경험의 중심에 있는 한 개인의 삶을 따라가며 살펴봄으로써 그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앞선 연구들은 주로 피해와 가해를 나누어 살펴봄으로 연인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반응과 대응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양방향 폭력은 한 개인의 경험 가운데 피해와 가해만을 따로 떼어 탐구할 때 그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폭력을 경험한 성인 초기 여성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시해 보고자 했다.

연구분석 절차는 Giorgi(1985)가 소개한 4단계를 따랐다. 분석에 앞서, 질적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관련 분야에 대한 선입견, 편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과 생각들을 점검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앞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수차례 진행하고, 성폭력 및 학교폭력 분야의 정책연구 또한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된 경험이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자는 피해 여성의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므로 다소 편향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객관화하여 이러한 영향이 연구 분석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연구들을 숙지하고, 다양한 견해를 섭렵하여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연구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며 공통된 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로 자료들 속에 참여자들이 소개한 경험의 핵심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본질을 공통된 의미 단위로 묶어 나갔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도출한 공통된 의미들을 연구자의 언어로 변환시켰다. 네 번째 단계로 앞서 도출한 의미 단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주들을 선별하여 유목화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 과정 평가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세 집단 감사자 평가(Guba & Lincoln, 1981)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질적 연구를 다년간 수행하고, 평정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평가 자료로 제공하였던 수정 전 연구 결과에서는 주제들이 심리·정서적 영향에 관한 것, 관계적인 것, 인지적인 것, 대응에 대한 것 등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제 기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주제가 정리되면서 피해에 대한 부분, 가해에 대한 부분이 소개되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어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또한, 소주제들로 현재 결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give and take 식 폭력의 상호교환’ 및 ‘달래주기를 기대하는 분노 표출’ 등 연구자의 언어로 전환되지 않았거나 경험의 본질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주지 못하는 주제들을 전체적으로 검토 받았고, 피드백 받은 내용에 따라 기존 주제들이 삭제 및 수정되었다. 또한, 소주제들이 겹치는 결과들이 있었던 경우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었고, 폭력 피해를 목인하며 내적으로 갈등한 주제들이 더 자세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4개의 소주제로 세분화해서 제시하였다.

두 번째 감사자 평가로 두 명의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평정을 요청하였다. 두 명의 참여자 중 한 명의 참여자는 여전히 교제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연구 결과에서는 애정결핍이 있는 요소들이 다른 참여자들도 고민하는 결과라는 점이 동질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나 교육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전달해 주었다. 다른 한 명의 참여자는 이전 인터뷰 당시 교제하였던 남자 친구와는 이별한 상태였지만 남자 친구의 집착 때문에 여전히 고민이 많은 상태에 있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다른 참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 신기했다는 점,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면 좋겠다는 견해를 전달해 주었다. 마지막 감사자로 본 연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양방향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성인 초기 여성 한 명에게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이런 경험을 하는 여성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들이 줄어들기 바라고, 자신 또한 반성하게 된 결과들이 있었다는 점, 향후 이 결과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전달해 주었다.

## 연구 결과

성인 초기 여성의 양방향 데이트폭력 경험의 주제는 25개의 소주제와 9개의 대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참여자들의 양방향 데이트폭력 경험의 본질은 ‘상대 연인의 태도 변화가 감

지됨’,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압박감과 불쾌함’,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자기개념이 손상됨’,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 ‘폭력 피해를 묵인하며 내적으로 갈등함’, ‘주도권 쟁탈을 위해 선제공격을 시도함’, ‘집착하고 통제하며 불안을 견뎌냄’, ‘공격적인 예민함은 정당화하며 허용함’, ‘대응하기 위한 가해 동기의 정당화’로 나타났다. 대주제는 갈등 및 폭력이 시작되는 직전의 경험과 피해로 인한 경험을 먼저 정리하였고, 이후 가해 경험을 정리해서 제세하였다. 이러한 순서로 정리한 대주제와 소주제는 유목화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뒤이어 각 범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상대 연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됨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느껴지는 상대 연인의 태도 변화로 인해 갈등의 불씨를 마주하게 된다. 그 가운데 ‘막 대하는 느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연인의 모습을 통해 느끼게 된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사례3은 마음을 주지 않다가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인이 자신을 편안하게 막 대하는 느낌을 주었다고 하였고, 사례11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보다 못한, 가족 이하의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례6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던 중 연인의 정절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짜증이 늘면서 서로 불같이 화내며 싸우게 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남자 친구가 \*\* 행위로 구치소를 다녀 온 후 항상 잘해 주던 친구가 갑자기 돌변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참여

표 2. 성인 초기 여성의 양방향 데이트폭력 경험주제

대주제	소주제
상대 연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 대해지는 느낌이 커져 감</li> <li>· 변했다는 느낌이 커져 감</li> <li>· 기대가 사라져 감</li> </ul>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압박감과 불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심과 질투, 반복된 갈등이 주는 피로감</li> <li>· 간섭과 통제가 답답함</li> <li>·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된 것 같은 불쾌함</li> </ul>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자기개념이 손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과 을이 변화되어 자존심이 하락함</li> <li>· 반복되는 피해로 자존감이 낮아짐</li> </ul>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적인 행동에 상처를 입음</li> <li>· 폭력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음</li> <li>· 돌변하는 모습에 놀람</li> </ul>
폭력 피해를 묵인하며 내적으로 갈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에 대한 합리화</li> <li>· 잘 대해준 것에 대한 보상심리</li> <li>· 피해가 있으나 끊을 수 없는 애정욕구</li> <li>· 연인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나약함</li> </ul>
주도권 쟁탈을 위해 선제공격을 시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도적 분노표현과 승부욕</li> <li>· 관계 주도권을 갖기 위한 감시와 통제</li> </ul>
집착하고 통제하며 불안을 견뎌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함을 견디기 힘든 집착</li> <li>· 연락의 빈도로 사랑을 확인하려는 욕구</li> </ul>
공격적인 예민함은 정당화하며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의 예민함에 부여한 면죄부</li> <li>· 자기방어식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공격성</li> <li>· 감정통제 불능과 불같은 성격에 부여한 젠더편향</li> </ul>
대응하기 위한 가해 동기의 정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죄책감이 사라진 공격성의 합리화</li> <li>· 폭력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공격성</li> </ul>

자들은 상대 연인이 잘해 주었던 모습 속에서 가졌던 기대가 사라지고 예전 마음 같지 않은 감정의 깊은 골을 느끼게 되었다.

**막 대해지는 느낌이 커져 감**

욕을 한 번도 안 했었고요, 이제 폭력도

쓰지 않았고 되게 예쁘게 행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편해지다 보니까 욕도 조금씩 하게 되고.. 그 예쁘게 막 대하고 그런 게 한 200일? 200일 조금 넘어서까지는 괜찮았는데.. (중략) 200일 지나서 시점에서부터는 뭔가 이렇게 나한테 대하는 게 이렇게 막, 막 대하는 느낌.. (사례1)

### 변했다는 느낌이 커져 감

3, 4월 달에 (구치소)에서 아무래도 나오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자존심 부리고 이랬어서.. 확 갑자기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어 가지고.. 그냥 그때 이번년도에 이제 좀 싸울 시기는 조금 지났긴 했는데 진짜 사소한 걸로 잠깐 투닥 거리는 정도로만 싸우지 크게는 안 싸워요. 그때는 이제 벽을 친다든가.. (사례6)

### 기대가 사라져 감

연애를 할 때 제가 더 지금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연락도 이제 별로 그런 게 없고 어찌 보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애가 좋은 거겠지 만 어찌 보면 제가 포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애가 뭔가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하나하나씩 포기하게 되니까.. (사례4)

###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압박감과 불쾌함

참여자들은 연인의 통제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잦은 갈등 및 다툼으로 인한 피로감이 쌓여갔다. 두 사람의 주된 갈등의 주제는 소위 '남자 사람친구, 여자사람친구'라 불리는 이성 친구들과의 관계였고, 이들의 연애는 통제와 질투가 반복되는 일상으로 채워지곤 했었다. 이외에도 화장, 옷 등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있었고, 대인 관계의 폭을 두 사람이외 영역으로 넓히지 못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둘 사이의

일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기 등의 규칙을 둬으로써 갈등과 긴장이 연속되었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던 참여자들은 연인의 말을 믿고 따랐던 것이 데이트폭력의 일종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했었다. 아래 사례로 소개한 사례13의 참여자는 연애할 때 연인의 성욕을 채워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고, 사례12의 참여자 또한 자신의 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인이 항상 성적대상으로 자신을 대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가진 채 연애를 지속했다고 하였다.

### 의심과 질투, 반복된 갈등이 주는 피로감

그거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냥 싸우는 이유는 다 그거 때문이에요. 질투하고 남자나 그냥 아는 오빠나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 오면 화내고 그래요. 처음에 싸울 때는 연락이 왔는데 그거 다 삭제했거든요. (중략) 그냥 삭제한 건데 갑자기 막 화내고 뭐 하고 싶고 막 동생들 부른다, 개 남자들 찾아서 죽인다 이리고.. (사례9)

### 간섭과 통제가 답답함

그냥 모든 일을 약간 제한하려고 하는.. 남자인 친구들이 꺼 있는 술자리는 절대 가면 안 되고 연락하는 걸로도 이제 뭐라고 하고, 둘이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카톡 방에서 1이 생기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핸드폰 붙잡고 연락을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많이 다투기도 다뤘고, 안 맞았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례6)

### 육구 해소의 대상이 된 것 같은 불쾌함

일주일에 한 번은 (성관계)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엄청 심했었어요. 저는 뭔가 오빠가 그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엄청 가졌고, 저는 너무 불안한 성격이기 때문에 임신 이런 것도 불안해서 약을 먹었어요. (중략) 사귀기 초반에도 오빠가 피임약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전 여자 친구는 먹었다. 작년 한 동안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게 점점 제가 연애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까 제가 가 스퀘어링 당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례13)

###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자기개념이 손상됨

데이트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참여자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애정은 깊어가지만, 냉랭한 연인의 반응과 멀어지는 느낌은 존재 가치와 자기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다툼이 생길 때마다 연인이 상처를 주기 위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자존감을 낮춰가기 시작했다. 아래 소개한 사례3과 사례4, 사례7의 참여자들은 연인이 결별을 선언했을 당시 붙잡거나,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저주는 상황들이 ‘을’의 느낌을 증폭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연애 초반 자신이 ‘갑’이 되었던 느낌이나 연인이 잘해 주었을 당시의 추억에 젖어들어,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 연인의 달라진 태도로 인해 생긴 혼란과 낮아진 자존감을 힘겹게 느끼게 되었다.

### 갑과 을이 변화되어 자존심이 하락함

옛날에는 되게 제가 갑이었고 애가 을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젠 애가 뭔가 갑이 되고 제가 을이 되는 입장인 거예요. 제가 더 좋아하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사례3)

### 반복되는 피해로 자존감이 낮아짐

주위에서 진짜 재가 저를 잘 만났다, 진짜 재가 재를 살렸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점점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했는데 요즘 계속 제가 부족한 사람 같고, 그리고 가끔 (남자 친구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언젠가는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이었는데 화내고 이러면 인생에 도움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3, 4월에는 자존감을 (스스로) 낮추는 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사례6)

###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

참여자들은 연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충격과 상처, 불안과 두려움 등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쾅 닫는 식의 행동을 비롯해 소리를 치고 욕하는 등의 모습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으므로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장난으로 여겼거나 크게 화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에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고, 화나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무기력하게 다가오기도 하였다. 더불어, 앞서 연인이 보여주었던 자신에 대한 배려와 친절, 호의를 얻기 위

해 보여주었던 많은 행동들 이면에 이와 같은 폭력성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고통스럽게 느꼈다.

**폭력적인 행동에 상처를 입음**

가끔 서로 싸울 때 자기가 억울하면 소리를 질러요. 지 화에 못 이겨서 문도 막 세계 쿵 닫고 나가버리고.. 또 화가 괜찮아지면 또 들어와서 말 걸고, 저는 상처받죠. 그냥 저는 개 나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막 울어요. (중략) 억울하고 약간 상처받아서 그냥 눈물이 났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심하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문 쿵 닫고, 물건을 막 쿵쿵 치고 그럴 정도로 잘못을 했나.. 그게 너무 억울해 가지고.. (사례1)

**폭력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음**

조금 뒤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화가 나서 거기 식탁에 있던 음식을 집어 던진 거예요. 저한테 던진 건 아닌데 그냥 바닥에 되게 세게 집어던졌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저도 그 모습에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될 집어던질 수 있지 어떻게 내 앞에서 저런 행동을 보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사례7)

**돌변하는 모습에 놀람**

애 생일이어서 자기 생일이라서 술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데려다 줬어요. 애 친구 한 명이랑 저랑 같이 막 진짜

거의 끌고 갔는데, 그때 갑자기 약간 난폭해졌던 것 같아요. 진짜 저 보고 집을 이제 가려고 했거든요. 막 가지 말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4)

**폭력 피해를 목인하며 내적으로 갈등함**

참여자들은 연인의 폭력에 대항하기보다 자책하고 합리화를 하며, 끊을 수 없는 애정 욕구로 인하여 폭력을 목인하였다. 예를 들어, 연인이 파인 옷을 입지 말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식의 강요를 하고,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말라는 금기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연인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뜨겁게 사랑받는 느낌 때문에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했다. 아래 소개한 사례10뿐 아니라 사례11 또한 “내가 남자에 미쳤나? 내가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애정결핍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보였다. 사례6은 남자 친구의 반복된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나랑 헤어지고 싶어 한다.’ 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며 피해망을 키웠고, 이로 인해 연인에게 더욱 집착하는 심리적 역동을 나타냈다.

**피해에 대한 합리화**

크게 다친 건 없는데 그냥 몸의 상처보다는 그때 근데 제가 약간 스스로 그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자기합리화. 그거를 진짜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라 하기도 그

런 게 제가 잘못했는데 이 주제에 뭘 하겠어요. 친구들 그러는 거보다는 저를 직접적으로 막 엄청 때리고 이런 적은 그래도 없었으니까. (사례4)

**잘 대해 준 것에 대한 보상심리**

오빠가 그냥 작은 것들, 오빠가 나한테 핸드폰 만지지 마 이러면 나는 원래 아니 내가 왜 너가 나한테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왜 안 만져야 돼 이런 거였는데 그냥 알았어 이렇게 들어주고 (중략) 지금 남자 친구는 워낙 나한테 잘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맞춰주게 되는.. (사례9)

**피해가 있으나 꾸을 수 없는 애정욕구**

처음에는 남자가 약간 싫었다가 이후에는 연애를 꾸을 수가 없게 약간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허전하고 내가 너무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10)

**연인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나약함**

많이 울적해지긴 해요. 근데 제가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제 기분을 제가 컨트롤을 못해요. 뭔가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 친구랑 만나서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그냥 뭐 가까운 데 어디간다던지 이러면 저는 그걸로도 기분 전환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사례7)

**주도권 쟁탈을 위해 선제공격을 시도함**

참여자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시도로 일부러 화를 내거나 침묵하고, 연인을 감시하며 통제하였다. 상대가 달래주기를 기대하며 일부러 화를 내기도 했지만, 주도권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승부욕의 충족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아래 소개한 사례 외에도 사례3은 두 사람이 원래 모두 화가 많은데 자신이 화를 더 났으로써 주도권을 가졌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연인의 일상을 확인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시시때때로 알고자 했는데, 사례1, 2, 4, 8, 9, 11은 특히 ‘연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례8은 연인이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연락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주기를 바랐고, 사례11은 연락을 잘하는 것을 연인관계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전에 만났던 다른 이성들로부터 지나친 집착이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고 하였다.

**의도적 분노표현과 승부욕**

일부러 화를 더 내는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별로 안 나는데도. 그니까 화가 나 있는 얼굴로만 풀리잖아요. 근데 일부러 더 화를 내는 그런 게 있어요. (중략) 내가 이겼다는 느낌이랄까. 그냥 왜 제가 입을 다물고 있냐면 아무리 계속 짜증이 나도 똑같이 상대방도 짜증을 내는데.. 내가 개가 짜증내는거 그냥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려고 있으면 알아서 지가 풀려고

와요. 제가 약간 자존심이 세 가지고 먼저 사과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약간 좀 먼저 사과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하려고 침묵하는 것도 있긴 해요. (사례2)

### 관계 주도권을 갖기 위한 감시와 통제

저한테 조금 허락? 남자 친구는 안 그러는데 저는 허락을 좀 받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생각해도 다른 애들은 난 너 같은 애랑 못 만난다고 다 그러는데 제가 좀 구속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중략) 가족 약속이어도 좀 저한테 약간 물어보고 잡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초반에는 제가 그걸 엄청 요구 했어 가지고.. (사례10)

### 집착하고 통제하며 불안을 견뎌냄

참여자들은 연인을 통제하고 집착하며 자신이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어 냈고, 연락의 빈도를 통해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 연락에 집착하게 된 이면에는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에 대한 불안감,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아래 소개한 사례4는 연락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 몇 분 몇 십분 안에 연락이 한 번씩은 꼭 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남자 친구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여자 친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부담을 견디지 못한 남자 친구는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참여자가 이를 만류하며 관계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는 긴장

감은 계속 이어져 왔다.

### 불안함을 견디기 힘든 집착

저는 가는 게 한정적이에요. 집, 회사 이렇게. 그런데 남자 친구는 집, 일하고 친구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남자 친구가 저는 살짝 좀 불안하긴 하죠. 요즘에. 그래도 오래 만났고 이제 새로운 여자가 눈에 뵈 수도 있으니까... 연락이 안되면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누구랑 있는지 물어봐요. 그 주변에 여자 목소리 들리면 그 여자 누구야? 이런 말이에요. (사례1)

### 연락의 빈도로 사랑을 확인하려는 욕구

애가 너무 바빠진 거예요. 연락 하루에 진짜 한 시간도 못 해가지고.. 이해는 해줄 수 있는데 그 한 시간 동안 표현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제 댄에는 그게 되게 서운했던 거여서..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뭔가 여자는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도 확인을 못 받으니까 되게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4)

### 공격적인 예민함은 정당화하며 허용함

참여자들에게 ‘여성의 예민함’은 하나의 면죄부 역할을 하였다. 여성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리주기의 예민함은 감정조절의 어려움이나 분노, 짜증 등의 감정을 숨구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숨겨진 공격성이 표출되는 것은 어려서 공격을 당한 결과물로 자기 방어 성격이 강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아래 소개한 사례3은 어린 시절,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언니들에게 많이 맞아본 결과로 멧집이 생겼을 뿐 아니라 누구든 자신을 화나게 하면 욕을 하거나 공격적 행동으로 맞서는 것이 반사행동처럼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불같은 성격에 대해 ‘여자니까 괜찮고, 남자니까 참아야 한다.’는 식의 젠더편향 인식을 갖고 있었다. 아래 소개한 사례9는 두 사람이 모두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충돌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 마다 여자니까 화난 것을 더 자유롭게 표현해도 괜찮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공격적 행동을 더 자주 나타냈다고 하였다.

#### 여자의 예민함에 부여한 면죄부

뭔가 기분이 확 왔을 때는 예민해져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참 되게 어렵긴 한데 아무리 컨트롤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생리 기간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시험 기간 이런 상황에서 예민함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막 더 꽃혀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막 서운해지고 화나고 감정이.. (사례 8)

#### 자기방어식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공격성

욕을 해야지 얘기 정신을 차려요. 아 \*\*가 진짜 화났구나 이걸 알아요. \*\*이는 제가 진짜 화를 잘 못 참는 걸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분조장 약을 먹

었거든요. 보고 배우는게 그 모양이어서..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 좀 많이 맞고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맞아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든 여자든 화가 나면 계속 달려드는 스타일이에요. (사례3)

#### 감정통제 불능과 불같은 성격에 부여한 젠더편향

우리가 막 싸울 때 남자는 원래 말,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여자니까 진짜 화나고 그래도 여자니까 소리 질러도 된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원래 화나면 소리 질러가지고 그거를 남자가 참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 (사례9)

#### 대응하기 위한 가해 동기의 정당화

참여자들에게 공격 본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로 나타났다. 아래 소개한 사례6은 남자 친구와 갈등이 있거나 싸우게 될 때 상상 속에서 남자 친구를 죽이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격성은 갈등이 생길 당시에 촉발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어떠한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마음이 격양될 때가 있음을 표현했다. 사례9는 남자 친구의 신체적 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견디기 힘들었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면서부터는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죄책감이 사라진 공격성의 합리화

가끔씩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잘못 없다고 죽을 만해서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이게 딱 합리화되는? 애는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보통 이런 마음이 진짜 무게가 진짜 누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싸울 때 (중략) 그 순간에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먹은 거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 지금도 하나도 안 미안해요. (사례6)

### 폭력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공격성

때리는 건 좀 만나고 얼마 안 되는데 그때부터 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때리고 그 다음 날에는 진짜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너무 진짜 많이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중략) 좀 크게 싸웠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때려서 그때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나도 못 참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례9)

##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양방향 데이트 폭력의 경험을 탐구해 보기 위한 목적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양방향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성인 초기 여성 13명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총 25개의 소주제와 9개의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9개의 대주제에는 ‘상대 연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됨’,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압박감과 불쾌함’,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자기개념이 손상됨’,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 ‘폭력 피해를 묵인하며 내적으로 갈등함’, ‘주도권 쟁탈을 위해 선제공격을 시도함’, ‘집착하고 통제하며 불안을 견뎌냄’, ‘공격적인 예민함은 정당화하며 허용함’, ‘대응하기 위한 가해 동기의 정당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본 연구의 질문인 ‘성인 초기 여성의 양방향 폭력의 경험은 어떠한가?’와 ‘그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결과에서 데이트폭력은 양방향 폭력으로 이뤄진다는 선행연구(Rubio-Garay et al., 2017)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인 초기 여성들의 양방향 데이트 폭력 경험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은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대 연인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였다. 인터뷰 당시 동거하는 참여자가 있기도 했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서로 편안해지며 가족 같은 느낌이 커지면서, 동시에 상대방부터 ‘막 대해지는 느낌’, ‘가족 이하의 느낌’, ‘노력과 애정이 없는 느낌’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상대는 변했고, 이전까지 믿고 바라왔던 기대들이 무너져 내리며 심리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참여자들은 상대 연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욕’을 듣거나 함부로 대해 졌던 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워쫘던 사랑이 철회되고,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었던 태도가 줄어든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폭력’을 ‘태도의 변화’로 인식하고 이를 눈감아주거나 사랑의 철회로 여기며 슬픔을 느꼈다. 또한, 사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 오히려 상대의 폭력 수위를 높이거나 폭력이 지속되는 관계 패턴을 만들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선행연구에 소개한 것과 같

이 데이트폭력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지만(박하나, 장수미, 2012; Straus, 2004; Straus, 2017),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소 경미한 수준의 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박경은, 유영권, 2017)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데이트폭력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막 대하는 느낌을 주는 것을 비롯해 욕을 하거나 격하게 화를 내는 등 다른 범주들에 비해 수위가 다소 낮은 정서적, 언어적 폭력으로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폭력의 시작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 있다. 달리 말해, 친밀한 애정을 나누던 사이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애정’을 나눴던 경험이 배경이 되므로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후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인식의 부재와 대응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소개한 강희영 등(2017)의 연구에서와 같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약 88.5%가 상대방과 결혼했다고 응답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친밀한 관계 안에서 ‘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영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회적 인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폭력의 범주와 유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은 수위가 낮은 수준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참여자들은 상대의 통제적 폭력에 대해 압박감과 불쾌함을 느끼지만 이를 억압한 채 관계를 지속한다. 이는 선행연구에 소개한 통제적 폭력을 별도의 폭력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는 연구들(홍영오 등, 2015; Johnson et al., 2019)과 맥을 같이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범주의 폭력이 성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등이 함께 묶여 나타날 때 억압과 피로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트 관계는 두 사람이 혼인 관계로 서로에 대한 영원한 헌신을 공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이성에게 매력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긴장과 불안이 있고, 두 사람은 이를 다루기 위해 ‘통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주요한 갈등으로 꼽았던 주제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를 일컫는 일종의 이성 친구들이었다. 참여자들은 교제가 시작된 이후로 남자 사람 친구를 모두 차단하도록 강요받거나, 연인 없이 남자가 있는 곳에 가지 못하도록 제한당하여 답답함과 억울함, 피로와 압박 등을 호소하였다. 이는 통제 행동 가운데 관계를 제한하는 행위가 주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배미란(2022)의 연구를 지지하며,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참여자 중에는 통제 행동과 성적 폭력을 함께 경험할 때,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연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성적 의무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달리 말해 싫지만 맞춰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인지 부조화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소개한 사례13은 남자 친구의 바람대로 주변의 관계를 제한하고 남자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통제적 굴레 안에 들어갔고, 싫지만 남자 친구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폭력을 온전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상당한 양가감정을 느끼고, 인지 부조화 속에 갇혀 심리적 충동이 커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폭력이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나(임정하, 최정원, 2022), 상대의 통제적, 정서적 폭력이 함께 동반될 때 상당히 은밀하게 계속될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있기 전까지 이것이 문제로 드러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이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게 된 변곡점은 상대로부터 이전과 다른 대우를 받게 된 순간이었고, 계속된 폭력은 자기개념의 손상을 가져와 자존심과 자존감의 하락을 가져왔다. 특히, 갑과 을이 변화된 느낌은 참여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애 기간 중 느낀 ‘갑’과 ‘을’의 위계 차이가 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과 헌신의 정도, 상대에게 맞춰주는 태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 참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지속적인 열정을 쏟았던 경우 관계의 위계가 발생했고, 여기서 형성된 여성의 자존심은 이후 연인의 태도 변화로 인해 더욱 손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연구(Lichte & McCliskey, 2004)에서 볼 수 있었던 젠더 중심의 경제적, 신체적 힘의 위계와는 달리, 관계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 애정과 호감 획득의 정도 차이가 만들어 낸 위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참여자들이 교제 이후 남자 친구에게 헌신과 애정을 쏟고 이를 지지받았던 경험들이 자존감을 높였지만, 이후 계속된 폭력

으로 인해 자존감이 더욱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관련된 앞선 연구들(Beck et al., 2014; Van Ouytsel et al., 2017)을 확장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은 상대의 폭력이 계속되고, 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소개한 선행연구 결과들(박경은, 유영권, 2017; Matheson et al., 2015; Sabina & Straus, 2008)을 지지한다. 참여자들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괴로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목인하며 내적으로 갈등’하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 안에는 피해에 대한 자기합리화, 남자 친구가 잘해 주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었고, 폭력이 있지만 멈출 수 없는 애정에 대한 욕구, 홀로 설 수 없는 나약함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애착 대상과의 안정된 관계적 경험이 부족하고 유기불안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경우 데이트폭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박미소, 이지연, 2021; 양승애, 서경현, 2019; 조영주, 심은정, 2023)를 지지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이혼 및 가정폭력이 있었던 환경에서 자랐고, 타인에 대한 불신이 있어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애정결핍으로 인하여 폭력적인 사랑이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내적 역동이 강했다. 이는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폭력’에 대한 ‘인식’을 다룰 뿐 아니라, 이 문제에 결부된 각 개인이 갖는 ‘심리적 결핍’의 요소들을 반드시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해 준다.

양방향 폭력에서 여성이 폭력을 행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주도권 쟁탈을 위한 선제공격의 시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하여 일부러 화를 내거나 침묵했고, 상대를 감시하며 통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소개한 Aizpurua 등(2021)의 견해에 반하여, 여성 또한 남성만큼 통제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장정윤, 강지연, 2017; Giordno, Copp, Longmore., & Manning, 2016)를 지지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폭력이 갖는 동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앞에서 결과로 제시하였던 위계적 힘의 불균형 요소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참여자들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갑’의 위치에서 상대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통제의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젠더론적 측면(Lichte & McCliskey, 2004)에서 남성성에 부과된 힘의 추구하고 권력의 쟁취를 주목적으로 한 통제와 폭력이 아닌 상대의 관심과 사랑을 끌어내기 위한 통제라는 점에서 젠더론적 해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여성이 수동적으로 남성의 사랑을 기다려왔다면, 지금의 시대를 대변하는 여성들은 적극적이면서, 때로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얻기 위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집착과 통제를 통하여 상대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사랑이 철회될 것에 대한 불안을 견뎌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이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높일 뿐 아니라(박미소, 이지연, 2021; 조영주, 심은정, 2023), 자신의 불안을 분노 및 통제의 방식으로 표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Bouchard et al., 2009)를 지지한다. 따라서 관

계 불안은 상대의 폭력에 대항하지 못하는 의존성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견뎌내지 못한 공격성의 표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방향 폭력에 기여 하는 심리적 기전을 드러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소개한 것과 같이 통제적 폭력으로 인하여 여성이 받게 될 우울, 불안, 불신, 두려움의 증가(여성가족부, 2021) 및 남성이 받게 될 무력감, 자기비하, 신체화 증상(박경은, 2017) 등의 심리적 영향은 두 사람의 관계 역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쳐 더욱 수위 높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양방향 폭력을 행사한 참여자들은 더욱 예민해져서 공격적 행위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한 관계 갈등과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 중에는 ‘여성의 예민함’을 하나의 면죄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리 주기에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동요가 있고, 여성은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여성의 예민한 공격성은 자연스럽다는 당위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젠더 편향적 관점에서 해석해 왔던 폭력에 대한 인식(Dutton & White, 2013; Machado et al., 2016)을 재고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또한, 여성의 폭력은 앞선 결과로 제시한 통제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불안을 다루기 위한 목적 이외에, 감정동요의 부적응적 표출의 형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서는 양방향 폭력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를 점검해 보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이 만들어 낸 젠더 편향적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한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젠더 및 관계의 위계가 관계 역동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임상현장에서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연구 결과로 제시한 ‘대응하기 위한 가해 동기’는 여성의 폭력이 남성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Dobash & Dobash, 2004)를 지지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참여자들이 피해로 인해 생긴 가해 동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행 국내 사법 제도에서는 가해 행위의 동기, 즉 우발성과 계획성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달리 말해, 갈등 상황에서 고조된 감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가해와 계획된 가해의 처벌 수위는 그 행위가 시도된 맥락적 배경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참는 것의 한계에 도달하여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죄책감이 사라진 채 연인을 살인하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을 반복한 것은 상대 공격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가해 행위라 할지라도 그 책임의 결과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것이 때로는 계획된 가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갈등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교육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주제를 다룸에 있어 새롭게 부각된 양방향 폭력에 대한 견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결과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여성은 폭력의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성 또한 양방향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심리적 요소들을 상세하게 드러내 줄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젠더적 관점에서 강조해 왔던 남성의 경제적, 신체적 힘(power)이 만들어 낸 위계적 요소들 이외에도 서로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들이 만들어 낸 위계가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여성의 가해 동기는 남성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관계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동기 및 불안을 다루기 위한 방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줄 수 있었다. 다섯 번째, 폭력이 있지만 이별하지 못하는 요소들로 건강한 애착 관계 경험의 결핍 및 강한 애정 욕구 등이 내재해 있음을 드러낼 수 있었고, 이를 포함한 향후 실효성 있는 데이트폭력 예방 대책을 제안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 젠더 중심의 인식들이 데이트폭력에 관여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었고, 여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적 대응에 다소 낮은 책임감을 부여한 현상과 상대의 폭력을 참고 인내하며 키워 온 공격성이 잠재한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한계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교제를 하는 중에 있었으므로 이별 한 참여자들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성 교제만을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성별 지향을 폭넓게 포함할 수 있는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 주제는 성인 초기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남성의 경험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친밀한 관계에서의 양방향 폭력을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서 폭력의 유형별로 경험의 요소들을 나누

어 결과를 제시해 볼 수 있다. 현재 연구 주제는 성인 초기 여성의 양방향 데이트폭력이 하나의 현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지 그 요소들을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연구들은 주제를 좀 더 초점화하여 폭력 유형별, 관계 형태별 특성을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2024 치안전망 2024」(2023).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강희영, 박순주 (2017).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가은 (2022). 폭력 허용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압적 통제와 확대(escalation)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3), 27-60.
- 김동현, 박주애, 곽대경 (2021).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5(2), 145-160.
- 김혜미 (2024).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의 법적 정당성 검토-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37, 55-90.
- 김효정 (2022).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MBN뉴스(2024.05.26.) “데이트폭력, 올해 구속률 2%도 안된다... 대체 왜?”  
<https://www.mbn.co.kr/news/society/5029183> 에서 2024년 6월 1일 인출.
- 박경은 (2017). 결혼적령기 남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경험. *상담학 연구*, 18(4), 409-430.
- 박경은 (2023). 성인 초기 커플의 데이트폭력 유형에 따른 가해와 피해에 대한 관계 역동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4), 497-536.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미소, 이지연 (2021). 유기불안이 심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248-261.
- 박정희 (2021).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요인: 자아존중감과 자아 분화의 매개 효과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선 (2024). 데이트 폭력 통제행동과 인지적 유연성: 부정적 문제지향과 경계선 성격의 순차매개효과. *한국형사정책학회*, 36(1), 37-62.
- 박하나, 장수미 (2012).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 영향요인- 피해 여학생과 가해 남성의 음주 문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3(1), 33-52.
- 배미란 (2022).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 및 사례 (상시협 교육자료). *울산대학교 법학과*
- 송민진, 박현정 (2021). 스토킹의 현주소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이론 실무연구*, 9(2), 141-170.
- 양승애, 서경현 (2019). 집착 성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315-336.
- 연합뉴스 (2024.05.14.). 여가차관 “교제폭력 피

- 해자 보호 조치 불충분.. 대책 보완해야” (2024.05.14.).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4039551530> 에서 2024년 5월 17일 인출.
- 원혜옥 (2022). “데이트폭력처벌법”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에 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14(3), 39-70.
- 임정하, 최정원 (2022). 대학생의 아동기 불안정애착과 거부민감성 및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 *생애학회지*, 12(2), 21-39.
- 장미혜, 김효정, 박상민, 유경희, 이다은, 정다은, 정연주, 정지연 (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장정운, 강지연 (2017). 대학생의 대상관계수준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307-327.
- 조영주, 심은정 (2023).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2), 587-608.
- 표승연 (2011). 이성관계에서 관계만족과 결별의도를 설명하는 통합인과모형의 검증: 조절초점의 부합도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91.
- Aizpurua, E., Copp, J., Ricarte, J. J., & Vázquez, D. (2021). Controlling Behavior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omen in Spain: An Examination of Individual, Partner, and Relationship Risk Factors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2), 231-254.
- Beck, J. G, Clapp J. D, Jacobs-Lentz J, McNiff J, Avery M., & Olsen S. A. (2014). The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conditions with employment, interpersonal, and subjective functioning after intimate partn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20(11), 1321-1337.
- Bouchard, S, Sabourin S, Lussier Y., & Villeneuve E. (2009). Relationship quality and stability in couples when one partner suffers from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5(4), 446-455.
- Creswell, J. W., &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ndon: SAGE Publications.
- Dobash, R. P., & Dobash, R. E. (2004). Women's violence to 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Working on a puzzl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3), 324-349.
- Dutton, D., & White, K. (2013). 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New male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2(1), 5-17.
- Giordano PC, Copp JE, Longmore MA., & Manning WD. (2016). Anger, control,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1), 1-13.
- Guest, G., Namey, E., & Mitchell, M. (2013). *Collecting Qualitative Data: A Field Manual for Applied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 Johnson, H., Eriksson, L., Mazerolle, P., & Wortley, R. (2019). Intimate femicide: The role of coercive control. *Feminist Criminology*, 14(1), 3-23.

- Lichte,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 344-357.
- Machado, A., Hines, D., & Matos, M. (2016). Help-seeking and needs of male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Portugal.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17, 255-264.
- Matheson, F. I., Daoud, N., Hamilton-Wright, S., Borenstein, H., Pedersen, C., & O'Campo, P. (2015). Where did she go? The transformation of self-esteem, self-identity, and mental wellbeing among women who have experienced intimate partner violence. *Women's Health Issues*, 25(5), 561-569.
- Ministry of Justice. (2015). New Zealand Crime and Safety Survey. Wellington: Ministry of Justice.
- Rhatigan, D. L., Shorey, R. C., Nathanson, & Alison, M. (2011).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ymptoms on women's commitment to a hypothetical violent relationship: A path analytic test of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shame, and self-efficacy on investment model factor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3, 181-191.
- Rubio-Garay, F., López-González, M. A., Carrasco, M. Á., & Amor, P. J. (2017). The role of coercive control. *Feminist Criminology*, 14(1), 3-23.
- Rusbult, C. E. (1980a).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117.
- Sabina, C., & Straus, M. A. (2008). Poly 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 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6), 667-682.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Straus, M. A. (2017).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pp. 29-48). Routledge.
- United Nations. (2014). Guidelines for producing statistics on violence against women: Statistical surveys (No. ST/ESA/STAT/SER.F/110). United Nations.
- Van Ouytsel, J., Ponnet, K. & Walrave, M. (2017). The associations of adolescents'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well-being and engagement in risk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55, 66-71.

1차원고접수 : 2024. 07. 04.

심사통과접수 : 2024. 08. 13.

최종원고접수 : 2024. 09. 30.



## A qualitative study on early adult female's bidirectional dating violence experience

Kyung Eun Park

Semyu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nature of the bidirectional dating violence experience of early adult women. To this end, 13 early adult women were interview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s. As a result, 25 sub categories and 9 essential categories were derived. The essential categories were 'detected changes in the attitude of the partner', 'pressure and discomfort caused by dating violence', 'damaged self-concept due to dating violence', 'wound and shock caused by dating violence', 'conflict internally while condoning the damage of violence', 'attempting a preemptive attack to take the lead', 'obsessed, controlling, and enduring anxiety', 'justifying and allowing aggressive sensitivity', and 'justifying the motive for the offense to respond'.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previous studies, and elements necessary for future clinical intervention and program planning were suggested.

*Key words* : early adult, female, bidirectional dating violence, phenomenological research, qualitative study